

‘부강한 광주’ 힘찬 도약 알리는 새해 첫 신호탄 광주시-LG이노텍, 1000억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차량용 제어모듈 생산라인 추가 구축... 2028년까지 단계적 투자 시, 행·재정적 지원 총력... 광주 미래차·전장·AI 산업생태계 강화 강기정 시장 “전략산업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지역경제 활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LG이노텍은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차량용 제어모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새해 부강한 광주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 LG이노텍 문혁수 대표이사 사장과 유병국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장 전무, 조백수 경영지원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광주사업장에 차량용 제어모듈(AP모듈)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차량 AP모듈(Application Processor Module) 생산라인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완공 후 LG이노텍 광주시

업장 전체 연면적은 총 9만7000㎡에 이르게 된다.

‘차량 AP모듈’은 LG이노텍이 지난해 첫 시동을 건 신사업 분야다. 이 제품은 컴퓨터의 CPU처럼 차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차량 내부에 장착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과 같은 자동차 전자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데 쓰인다. 광주시는 LG이노텍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세금 감면 및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LG이노텍 광주사업장이 모빌리티부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광주 미래차·전장·인공지능 실증도시 전략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특히 차량용 제어모듈은 자율주행과 전기차 확산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핵심 부품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1차적 고용효과는 30명이지만,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LG이노텍과 투자협약은 부강한 광주 원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광주가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이번 투자가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전략산업 분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광주사업장은 1985년 준공 이후 LG이노텍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사업의 ‘마더 팩토리’로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핵심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광주 역사와 및 협력회사들과 동반 성장하며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시, 소상공인에 홍보매체 무료 개방 시 운영 전광판·빛고을TV 등 38곳... 2월10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가 운영하는 총 38곳의 홍보매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를 공모한다.

‘홍보매체 이용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덜고, 공익적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 3곳 ▲빛고을티브이(TV) 27곳 ▲시청사 엘리베이터 8곳 등 총 38곳이다. 해당 매체들은 주요 교차로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홍보 효과가 크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에 따른 불편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상가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 ▲경제활성화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6개 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홍보 기회를 제공받는다.

홍보 콘텐츠는 30초 이내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단체의 공익활동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특정 종교나 정당 홍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영리 목적 홍보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광주시 누리집(시청 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sam102d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6년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올 하반기 이용자 공모는 오는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팔 기자

광주·전남 제조업체 70% “올해 경기, 전년수준·소폭개선”

광주·전남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경기에 대해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경기 및 경영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전남 소재 제조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0%가 2026년 경기 흐름을 전년(2025년)보다 소폭 개선(35.0%) 또는 전년과 비

광주상의,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발표 47.5% “경영목표 전년 실적 수준” 현 수준 유지 경영 시사

슷(35.0%)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폭 둔화(19.2%), 뚜렷한 악화(10.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또는 정체 국면을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영 목표와 관련해서는 내수 목표치를 전년 실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 수출 목표 역시 전년 수준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 기업이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를 묻는 질문에 72.5%가 안정(유지) 경영을 선택했으며, 확장(성장) 경영은 18.3%에 그쳤다. 경영

계획 수립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경기·수요 전망(49.2%)이 가장 높았고 비용·수익성 요인(31.7%)이 뒤를 이었다. 경제 성장의 긍정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42.5%)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기업 투자 확대(32.5%), 수출 호조 지속(30.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방 요인으로는 유가·원자재가 변동성(45.8%)과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0.0%), 트럼프발(發) 통상 불확실성(35.8%) 등이 상위를 차지해 대외 여건 악화가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신영길 기자

에 따른 물량 감소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산지 출하량 증가로 소폭 하락했다.

aT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엽·과채류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당분간은 채소류 강세와 월동채소 약세가 혼재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T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장보기를 돕기 위해 농산물 가격정보와 제철 농산물 동향을 농산물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임재일 기자

한파에 상추·애호박값 ‘굉충’... 과일류는 보합세

aT “기상 악화로 채소류 변동성 확대, 당분간 지속”

주 전보다 51.5% 올랐다.

애호박(1개)은 2000원으로 20.5% 상승했고 청양고추(100g)도 1000원으로 31.6% 뛰었다.

이는 12월 하순 이후 일조량 감소와 한파로 작물 생육이 둔화된 데다 난방비 등 생산·유통 부대비용 증가가 겹치며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상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 유통 기한이 짧고 보관이 까다로운 품목으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일류는 저장 물량 중심의 출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부진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

한파와 일조량 감소의 영향으로 엽·과채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과일류는 저장 물량 위주의 출하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13일 발행한 농수산물 소식지 ‘얼마요?’에 따르면, 겨울철 한파와 잦은 흐린 날씨로 작물 생육 여건이 악화하면서 상추와 애호박 등 엽·과채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2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 소매 가격을 보면 상추(정·100g)는 1000원으로 2

전남농협,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 운영농협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농협전남본부는 13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 중인 도내 농협 20곳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상호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운영농협들은 계절근로자 인력 교류를 통해 유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 기자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농협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 대외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농협 간 계절근로자 교류가 이뤄지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운영과 통제는 인력을 공급한 농협이 담당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만성적인 영농 인력 부족난 해소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핵심”이라며 “효율적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속의 가족매일 꼭성